

성경세미나 01

신은 존재하는가?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신은 존재하는가?

발행일 2016년 7월 10일 초판발행
펴낸이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매골로 189번지
031-582-7273
info@ieden.kr
<http://www.ieden.kr>
ISBN 979-11-86212-06-6

값 무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목차

1. 영의 존재성
2. 과학의 한계
3. 성경에 대하여
4. 하나님의 예언
5.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6. 6천 년 역사
7. 이 세상의 지배자
8. 하늘 군병들
9. 구원 받는 자들

신은 존재하는가?

먼저, 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1. 영의 존재성

사람들은 영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자신에게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이 체험을 못했어도 체험을 한 다른 사람들이 있으므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영의 존재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체이탈이다. 유체이탈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본 교회에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정 집사는 1980년에 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영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또 영이 뭘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순간 자신이 천장으로 떠올랐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의 육체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때 그 육체가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 육체를 보고 있는 존재, 곧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것이 영이다. 육은 껍데기다. 낚으면 벗고 떠난다.

또 한 사례를 말하면, 백 집사는 1986년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3개월에 걸쳐 많은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의 유체이탈이 있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자려고 누웠다가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는데, 갑자기 천장까지 올라가서 바로 눈앞에 형광등이 보였다. 그러다 순식간에 구름 위로 올라갔다. 두려움을 느끼자 그는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

유튜브에서 유체이탈이나 임사체험을 검색하면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사, 과학자들의 체험도 있다. 전혀 영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도 유체이탈 또는 임사체험을 한 후에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2. 과학의 한계

흔히 사람들은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면 믿겠다고 한다. 그들은 신이 과학의 탐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과학이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영은 물리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육은 영에 비해 단순하고 조잡하다. 영은 육을 볼 수 있어도, 육은 영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때 그 영을 보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니다. 이때 “영안이 뜨었다”고 말한다. 본래 사람에게는 영안이 있다. 다만 평소에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성경에는 영안이 뜨여 영을 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살던 당시에 이웃 나라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엘리야가 알려주어 실패했다. 그 일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잡아오도록 군사들을 보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아람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에게 보고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찌기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왕하6:15-17)

엘리사의 기도로 그 사환은 영안이 열려 엘리사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영을 보며, 영적 체험들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

4 신은 존재하는가?

언을 주시기도 한다.

3. 성경에 대하여

다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흔히 말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순환 논리라고 한다. 하나님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의해 꾸며내어진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나오니까 그런 일을 한 홍길동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한 사람에게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책을 기록했다는 이야기 중 가장 오래된 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17:14)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게 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쳤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실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고, 장차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다.

성경 중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기록한 요한복음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는 96년경으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기원전 1446년으로부터 1542년 후이다. 성경은 그 동안 40여 명에 의해 기록된 자료들을 모은 것으로, 한 시대에 한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4. 하나님의 예언

성경이 홍길동전과 다른 점은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후대에 그 예언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예언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다.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 중 하나를 소개하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건이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갖은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바벨론을 시켜 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숭배와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두 번 점령당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우상에게서 돌이키도록 예레미야를 통해 권면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후에 유다를 멸망시키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뒤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29:10)

하나님께서서는 예정하신 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도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셨다 (사44:28-45:14 참조). 그리고 고레스는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대하36:22-23)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과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것은

6 신은 존재하는가?

역사적 사실이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으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예언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예언들은 수백 년, 어떤 것은 이천 년, 또 어떤 것은 사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주신 예언을 약 650년 뒤에 시행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 80년을 준비시키셨다.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증거를 구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15:8)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조금 알려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15:13-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데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 곧 가나안 족속의 죄를 벌하는 전쟁을 하시기 위함이다. 때가 되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시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멸하는 전쟁을 시키실 것인데, 그 일을 할 종으로 선택된 존재가 모세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그 일을 거부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
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3:11)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
며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등 이적들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며 가기를 꺼려하자 하나님
께서는 화를 내셨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
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
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
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4:13-15)

모세는 할 수 없이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
어내었다. 수백 년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5.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예언적인 일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그
일의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
지만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여 천사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 천
사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
하겠삽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단12:8-9)

천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을 알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귀다. 하나님의 목표가 마귀를 멸망시
키는 것이며,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들이
므로, 마귀가 알도록 예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8 신은 존재하는가?

마귀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일반인이든 신학자든 읽으면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예언으로 남기셨는가? 그 이유는 그 일을 해야 할 존재가 등장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증거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하도록 성경에 예언된 존재는 네 분밖에 없다. 그 중 두 분은 이천 년 전에 등장한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나머지 두 분은 이 시대에 등장한 두 감람나무다.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은 <성경세미나2: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와 <성경세미나3: 누가 감람나무인가?>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6. 6천 년 역사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6천 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류가 6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유인원은 적어도 천만 년 전에 등장했으며, 현생인류도 20만 년은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창조가 6천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려주셨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400년 정도가 되었고, 우주의 나이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수십 년 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방대한 우주와 시간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만 알려주셨고, 특별한 일이 없었던 중간 과정은 생략하셨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6천 년 전의 가인을 연결해서 알려주셨다.

첫 사람 아담이 지상에서 살게 된 이후, 그의 후손들은 원시생활을 해왔으며,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인과 아벨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따라서 6천 년은 인류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와 함께 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이 궁금하여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그에게 아담의 후손들이 원시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가 커서 2미터 50센티미터 이상이었고, 수십 명이 몰려다니며 사냥을 했는데, 그때 짐승들도 지금보다 매우 컸다. 그들은 동굴 입구를 큰 나무토막으로 막아서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았다. 하늘에는 큰 새들이 날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사람을 낚아채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컸고 날개를 편 상태는 8미터가 넘어 보였다.

사람들은 아담이 육으로 지음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이 살던 곳은 에덴동산이고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곳이 낙원이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8-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2:7)

그런데 이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다 왔으며, 바울은 그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고후12:1-4)

따라서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살았던 에덴동산은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세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아담은 육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담이 쫓겨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다시 에덴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시켜 지키게 하셨다(창3:24).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후 현재 우리가 보듯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육을 갖고 지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도 육을 벗으면 영이 되어 영의 세계로 가야 하는 것이다.

7. 이 세상의 지배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 재앙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는 사탄의 부하로, 그 이름은 “큰 음녀”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17:1-2)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며,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존재이다.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17:15)

이 음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눅4:5-7)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자신에게 넘겨준 존재는 따로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탄이다.

지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음녀의 부하들, 곧 마귀들이 그 영을 자신들의 세계인 음부로 데려간다. 그래서 심판 때 죽은 자들의 영은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20:13)

여기서 사망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세력을 말하고 음부는 그들이 사는 영의 세계를 말한다. 그 음부는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갔다 온 하나님의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도중에 하늘을 세 번 만났기 때문이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를 말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 밖에 있는 곳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음부이며, 셋째 하늘은 음부를 벗어나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다.

그런데 그 둘째 하늘이 음부라는 것을 밝힌 사람은 유일하게 에덴성회의 이영수 총회장뿐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1970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처음 갔었는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음부를 지난다”고 하심으로써 그는 음부가 우주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때까지 음부가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체험은 <이영수의 이상화보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영수 총회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계셨고, 상반신은 불꽃같은 것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네 생물, 곧 네 천사장들이 함께 있었다.

이영수 총회장은 하나님을 뵈고 난 후,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3년에 걸쳐 가르침을 받았다.

이영수 총회장은 또 음부, 곧 마귀 세계에도 가서 사탄, 곧 대왕 마귀를 보았는데, 그 앞에 있는 향로에서 향연과 함께 지상에서 기우제 지내는 소

12 신은 존재하는가?

리가 올라왔고, 대왕 마귀는 그 지역을 담당한 마귀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음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 아래에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수호신들과 각 지역을 담당한 신들이 있고, 또 각종 종교를 지배하는 신들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다른 신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 음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지상의 나라를 지배하는 수호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니엘서에 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여 금식하고 있었다. 3주 후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자신이 늦게 온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단10:12-14)

다니엘이 기도한 첫 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바사, 곧 페르시아의 임금이 가로막았다. 인간이 천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 바사국 군은 페르시아의 수호신을 말하는 것이다.

8. 하늘 군병들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음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나뉘진다. 자신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고 살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를 지배하는 신이 그 영을 데려간다.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두 군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과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제단 아래에 가 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6:9)

이들은 하늘 군병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마귀와 전쟁을 하려고 하신다.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계 19:7-8)

그들은 세마포를 입는데, 이것은 마귀와 싸울 때 입고 나갈 군복이다. 이들은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 마귀와의 전쟁에 나선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19:14)

이렇게 하늘 군병이 되는 자들은 모두 144,000명이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14:1)

144,000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원 받는 자의 상징이라고 여기지만, 이들은 구원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 군병들이다. 이들이 마귀를 멸망시킨 후에 마귀에게 끌려간 자들을 나오게 하여 심판을 하게 되며, 그 심판의 결과로 누가 천국 백성이 될지 결정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20:4-5)

144,000에 해당하는 하늘 군병들 외의 사람들은 모두 마귀에게 끌려가서 음부에 머문다. 따라서 그들은 마귀가 멸망당한 후에도 음부에서 나올 수 있으며,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 후에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22:3-5)

따라서 장차 천국에는 144,000의 왕국이 존재하게 된다.

9. 구원 받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그 논의를 하기 전에 지옥과 음부의 차이를 알아보자.

흔히 사람들은 지옥을 마귀가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지는 것으로 그렸다. 그런데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도 아니고, 마귀가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도 아니다. 지옥은 마귀를 벌 주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만드실 곳이다.

사실 지옥, 곧 땅 속에 있는 불구덩이란 개념의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 없다.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게헨나”를 불교의 “지옥”과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차용한 것이다.

헬라어 “게헨나”는 히브리어의 “게 힌놈”을 음역한 것이다. 이것은 “힌놈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불 태워 우상에게 바쳤다(대하28:3, 33:6).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저주하셨으며(렘19:6), 마지막 때 사람들을 벌주실 장소의 상징으로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이것을 불로 벌주실 장소로 말씀하셨다(마5:22).

지옥에 간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 앞으로 마귀를 멸망시켜야 그를 그곳에 던지며, 심판이 이루어져야 악인들을 그곳에 집어넣게 된다.

지옥과 흔히 혼동하는 것이 음부다. 음부는 히브리어 “스올”과 헬라어 “하데스”를 번역한 것인데, 원 의미는 구덩이나 무덤이다. 육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이 끌려가는 곳이 음부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망 뒤에 음부라 따른다”고 말한다(계6:8).

그런데 심판 때 음부는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20:14)

마귀가 멸망 받은 후에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음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때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불못이 바로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이다.

이 불못에 가장 먼저 던져지는 자들은 마귀의 수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이며, 이후에 사탄도 그곳에 던져진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계19:2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20:10)

그 후에 심판을 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모두 지옥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20:15)

어떤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지 보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21:8)

두려워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 나머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줄 안다.

16 신은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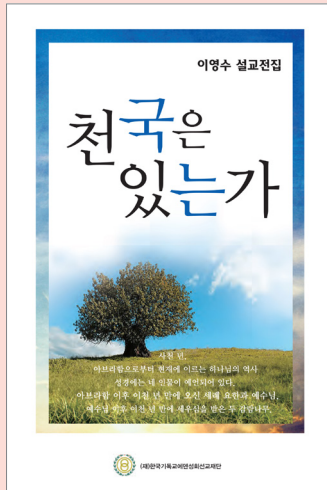
인간들 중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인류는 아담이 범 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 마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왕들과 장군들은 일반 백성들과 처한 상황이 또 다르다. 그들은 마귀에게 특별하게 쓰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19:19)

여기 보면, 짐승과 함께 나오는 군대의 지휘자는 땅의 임금들이다. 그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수호신은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지배하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전쟁을 시켜봐서 전쟁을 잘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영의 전쟁에서 장군으로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상에 그렇게도 많은 전쟁이 있는 것이다. 전쟁을 잘 수행한 왕들은 장차 짐승의 부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의 전쟁에 나오게 된다.

따라서 업적이 많고 존경받는 왕들은 장차 마귀 세계에서 더 크게 대우를 받게 된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마귀에게 지배 받으면서 마귀의 일을 돕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천국은 있는가〉는 이영수 총회장이 40여 년 간 설교한 자료들 중에서 42편을 골라 하나님의 섭리를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이 설교들에서 이영수 총회장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6천 년에 걸쳐 마귀를 멸망시킬 군대를 만들고 계시며, 이제 그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다. 그 일을 마무리지을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책을 받으셨고, 그 책을 보시고 감람나무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 계시록에서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ISBN 979-11-86212-06-6